

거장 노먼 포스터 구본창에 반하다

하이테크 건축의 거장 노먼 포스터(77) 부부 침실에는 한국 사진작가 구본창(60)의 작품이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이파리가 떨어진 담쟁이 넝쿨이 쓸쓸하게 붙어 있는 풍경인데 하얀 캔버스에 쓱쓱 드로잉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포스터는 이 작품을 보고 “하루 피곤이 싹 가신다. 아름다움의 정수”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영국 왕실로부터 ‘경’(Sir)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는 구본창의 작품에 반해 침실에 걸어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스페인 출신 부인 엘레나 포스터가 마드리드에서 운영하는 대형 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Slow Talk’를 여는 데도 일조했다는 소식이다.

아이웨이웨이, 안젤름 키퍼, 올라푸르 엘리아손 등 거장들의 작품만 주로 전시하는 공간에서 구본창은 자신의 6가지 시리즈 28점을 벽에 걸었다. 전시 오프닝인 지난달 21일 5점이 팔리는 등 적지 않은 호응을 얻은 그는 최근 한국에 돌아와 “유럽인들이 동양적이면서 명상적인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드라마틱하지도, 화려하고 원색적인 것도 아니지만 정중동의 세계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백자와 담쟁이 넝쿨 시리즈, 어둡고 고요한 바다 시리즈

“작품 보면 하루 피곤 사라져
아름다움의 정수” 극찬
부인 운영 마드리드 갤러리서
사진 28점 개인전 개최



구본창이 자신의 작품이 걸린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갤러리에서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감지되는 흔들림을 전달한다. 아이보리프레스는 화랑뿐 아니라 출판과 서점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부호들을 대상으로 애니시 커푸어, 프랜시스 베이컨 등 거장들의 화집을 한정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벨라스케스, 엘그레코, 고야, 피카소를 배출한 나라여서 그런지 스페인 사람들의 미술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하늘을 찌르더군요.”

구본창은 국내 사진계에서 3세대로 분류된다. 임흥식 최민식 등 1세대를 거쳐 강운구 주명덕 작가는 2세대, 배병우 민병헌 김아타 등이 3세대다.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3세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진 작가들의 상업적 활로가 뚫리기 시작했다.

“1985년 독일에서 돌아와 보니 사진 전문 화랑이나 큐레이터도 없더군요. 1988년 제가 직접 워커힐미술관에서 사진 기획전을 열었는데 작가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전시 기획에도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내년 1월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실에서 사진 아카이브 전시를 연다. 스페인 아이보리프레스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향휘 기자